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

피해보상금 186건 2억5100만원 확정

생활안정 위해 90% 시비로 충당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과 8월 31일 두 차례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액은 총 186건에 2억 5천1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피해보상액 중 시비 비중은 90%이며, 광주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17일 해당 자치구에 피해보상금을 교부했다.

피해보상액을 침수 유형별로 보면, 주택 22건 2천200만원, 상가 107건 2억1천400만원, 농경지 57건 1천5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주택은 동구와 서구가 각각 2건, 남구 18건이며, 상가는 서구 8건, 남구 99건이며, 농경지는 총 7.9ha로 동구 2건, 남구 55건 등이다.

보상금 재원은 주택과 농경지의 경우 79세대 3천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재난지원금이며, 국비보조금의 경우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키로 했다.

상가는 107동 2억1천400만원, 이재민은 12세대 200만원 등 총 2억1천600만원으로 전액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조사과정에서 무등록 소상공인 피해사례 8건에 대해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 28일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은 남구 대남대로 쉐보레 앞 도로유실 등 침수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전제품 등 피해보전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해의연금을 신청해 주택 침수의 경우 1세대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광주중기청을 통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최대한도 7천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보상금이 가급적 추석이전에 지원되도록 재원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보상금이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피해주민 입장에서 산정한 만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 광산구는 17일 구청에서 특별민원 처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특별민원 처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고질·악성 민원 사례 소개…응대·해소방안 등 제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17일 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이용범 조사관을 초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신설한 국민권익위는 그간 고질·악성민원 등 다양한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 조사관은 이날 교육에서 특별민원 체계적 대응법 등 국민권익위의 경험을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막무가내 주장형, 무한반복형, 욕설형 등 고질·악성 민원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다양한 응대·해소방안을 제시해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교육 내용을 공직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정기적인 민원 대응 교육으로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고, 구민이 불편함 없이 빠르게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고훈석 기자 ghs@

동구, 발전혁신위 구성·회의

5개 분과별 현안사업 등 논의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7일 민선7기 구정발전 정책자문을 위해 '동구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동구발전혁신위원회는 △문화관광 △민생경제 △도시환경 △복지건강 △자치분권 등 5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5~6명의 위원과 실무경험이 뛰어난 공무원이 한 팀을 이룬다. 위원은 구정발전에 열정을 가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구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실시한다.

동구는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전문가와 집행부가 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구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원 위촉 및 임원 선출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구정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혁신은 소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번 동구발전혁신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실무자들 간 적극적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동구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kz@

광주시, 청사 소나무숲 쉼터 조성 광주시는 17일 시청사 전면 소나무숲을 '시민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외용 평상 2개를 설치했다. 야외용 평상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 회의 장소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시청 제공

전남 농특산물, 중국 수출 '청신호'

장쑤성 수출상담회서 35만 달러 상담 성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원장 황재연)의 '전남 바이오활성소재산업 해외마케팅 수출지원단'이 중국 현지에서 전남 농특산물 3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까지 5일간 장쑤성 양저우시에서 전남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상담회 및 제품 판촉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에선 전남 농식품 기업인 ㈜장수식품, ㈜호성농업법인, ㈜월드T&F, 맑고밝고따뜻한영농조합법인, ㈜콩새미, 머니키㈜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17개 매장을 보유한 수입전문업체 '동원집단'과 55개 매장을 보유한 온오프라인유통업체 '강소수염그룹'을 비롯해 양주옌상, 청도맥주, 양주분공사 등 중국 측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8건 3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했다.

이에 따라 천연물 식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미생물농약 등 전남의 친환경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활성소재 제품의 중국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바이어 섭외 매칭단계부터 직접 참여했으며, 현지 유통업체와 바이어들이 전시된 전남 제품에 큰 관심을 보여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 교류와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친환경 농산물, 천연자원에 기반하는 바이오활성소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市, 추석 연휴 특별 교통종합대책 추진

귀성객·성묘객 위한 대중교통 확대 운영 등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성묘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먼저, 교통대책기간 귀성·성묘객이 몰리는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국립5·18민주묘지 방면 시내버스 518번을 하루 63회 증차해 배차 간격을 줄인다.

또한, 효령노인복지타운~월남동을 운행하는 지원15번 노선을 일부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토록 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해 성묘객의 편의를 높인다.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서 시·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 등 70명이 교통정리와 주차지도 활동을 하고, 종합고속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말바우시장 등 교통혼잡 지역에도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 등 400여 명이 교통정리와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한다.

지하철도 연휴 전날인 21일 하루 동안 막차 시간 이후에 소태방향 밤 12시45분 출발, 평동방향 밤 12시45분 출발 열차가 추가 운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을 안내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CCTV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해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IC(광산, 산월, 동림, 서광주, 용봉, 동광주, 문흥)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sh9668@